



Kiwoom Weekly



2024년 11월 4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대선과 FOMC, 슈퍼위크를 대비하는 자세

한국 증시는 1) 미국 대선, 2) 11월 FOMC, 3) 중국 전인대 상무회의의 결과, 4) RBA, BOE 회의, 5) 쿼컴, NAVER 등 국내의 주요 기업 실적 등 굵직한 대내외 이벤트를 치르면서 변동성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480~2,620pt).

미국 대선의 경우, 트럼프 트레이드 vs 해리스 트레이드간 손 바뀜이 6일 출구 조사 시점부터 빈번하게 출현할 수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주 중반부터 증시 변동성의 레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대선 직후 이를 뒤인 8일(금, 한국 시간 새벽)에 11월 FOMC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 Fed Watch 상 25bp 인하 확률이 90%대에 육박하는 만큼,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상태. 이보다는 9~10월 비농업 고용, 9월 CPI 등 지난 9월 FOMC 이후 고용과 물가 데이터를 입수한 파월의장이 기자회견이 중요한 것. 향후 경기 전망, 금리인하 경로, 중립금리 레벨 등과 관련한 스탠스 변화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정치, 실적, 매크로 상 주요 이벤트가 모두 몰려 있다는 점은 수급 여건이 얇아진 국내 증시의 장중 변동성을 금주 내내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1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빅테크 기업 실적, 미 대선과 FOMC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부각된 가운데 외국인이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도한 결과 양지수는 혼조세로 마감 (KOSPI -1.58%, KOSDAQ +0.23%)

주 초반 국내 증시는 M7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 강세, 주말 중 전해진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완화, 엔화 약세 출현 등 우호적인 대외 환경에 힘입어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주와 중소형주 중심으로 급등. 특히,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테슬라 관련 밸류체인 이차전지 종목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 주요 이차전지 종목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이후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 심리, 시장 금리 상승 등이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중. 다만, 장 중 당정이 반도체 특별법, 금투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금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증시는 낙폭을 회복하며 상승세로 전환. 그 가운데 일부 경영경 관련 분쟁 종목의 주가 등락폭이 커지며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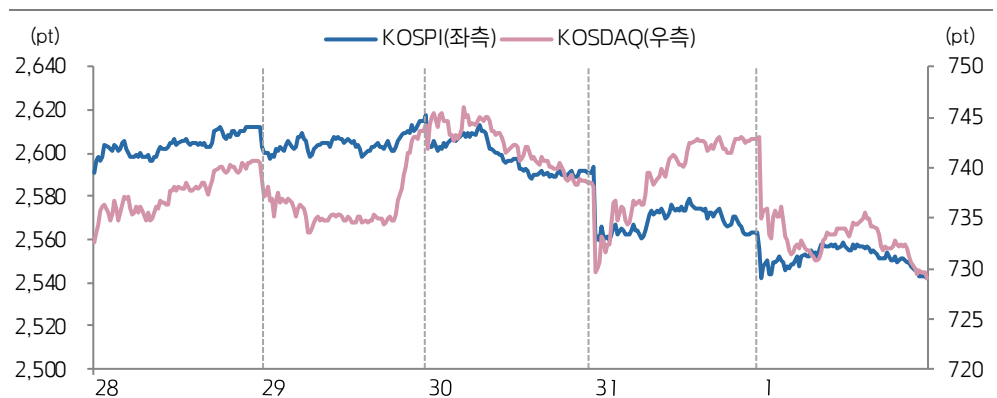
한편, 주 후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에서 막대한 AI 투자 지출의 당위성을 확보할 만한 수익성 개선 확신이 나타나지 못하자 주가는 급락. 여기에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SMC 주가 급락과 이에 영향을 받아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연출.

M7 종목 전체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결과 이를 반영하여 국내 증시는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 또한, 차주 미 대선과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결과 일부 방어주를 제외하고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흐름이 지속되었음.

업종별로 섬유 의복(+2.73%), 종이목재(+1.21%), 화학(+0.79%), 음식료품(+0.72%), 운수창고(+0.54%)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철강금속(-7.15%), 의약품(-4.73%), 금융업(-3.89%), 운수장비(-3.65%), 의료정밀(-3.11%)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1조 4,899억원)은 기계(+937억원), 서비스업(+440억원), 운수창고(+206억원), 전기 가사업(+195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6,695억원)은 철강금속(+3,101억원), 전기전자(+2,236억원), 금융업(+1,567억원), 서비스업(+487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4년 11월 4일

KIWOOM WEEKLY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11 월 4 일	월	유로존	제조업 PMI (확정치)	10 월	45.9	45.0(45.9)
			Sentix 투자자신뢰지수	11 월	-12.6	-13.8
		미국	CB 고용동향지수	10 월	-	108.5
	실적	SK 이노베이션, 엔씨소프트				
	행사	중국 전인대 개최(4~8 일)				
11 월 5 일	화	한국	CPI (YoY)	10 월	1.4%	1.6%
			CPI (MoM)	10 월	0.2%	0.1%
	호주	무역수지	9 월	-\$73.8b	-\$70.4b	
		마켓 종합 PMI	10 월	-	54.3	
		서비스 PMI	10 월	-	55.3	
		ISM 서비스업 PMI	10 월	-	54.9	
	호주	RBA 금리결정	11 월	4.35%	4.35%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실적	버텍스, 팔란티어, 하이브, 에스엠				
11 월 6 일	수	마켓 종합 PMI	10 월	-	54.3	
		서비스업 PMI	10 월	-	55.3	
		실적	노보노디스크, 도요타모터스			
11 월 7 일	목	중국	수입액 (YoY)	10 월	-	0.3%
			무역수지(USD)	10 월	-	81.71B
			수출액 (YoY)	10 월	-	2.4%
	독일	산업생산 (MoM)	9 월	-	2.9%	
		무역수지	9 월	-	22.5B	
		산업생산 (YoY)	9 월	-	-2.5%	
	유로존	소매판매 (MoM)	9 월	0.8%	0.2%	
	회의	FOMC 금리결정	11 월	4.50~4.75%	4.75%~5.00 %	
		BOE 통화정책회의	11 월	-	5.00%	
	지수	MSCI 반기리뷰				
	실적	퀄컴, 카카오				
11 월 8 일	금	미국	미시간대 1년 후 기대인플레이	11 월	-	2.7%
			미시간대 5년~10년 기대인플레이	11 월	-	3.0%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1 월	-	70.5
	중국	CPI (MoM)	10 월	-	0.0%	
		CPI (YoY)	10 월	-	0.4%	
		PPI (YoY)	10 월	-	-2.8%	
	실적	에어비앤비, NAVER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국 대선, 2) 11월 FOMC, 3) 중국 전인대 상무회의 결과, 4) RBA, BOE 회의, 5) 쿠팡, NAVER 등 국내외 주요 기업 실적 등 굵직한 대내외 이벤트를 치르면서 변동성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480~2,620pt).

1일(금) 미국 증시는 10월 고용 및 ISM 제조업 PMI 부진에도, 아마존(+6.2%), 인텔(+7.8%) 등 빅테크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7%, S&P500 +0.4%, 나스닥 +0.8%).

미국의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은 1.2만건으로 전월(22.3만건) 및 컨센(10.6만건)을 하회하는 쇼크를 기록. 이 같은 고용 쇼크는 침체 불안감을 다시 확대시킬 수 있었으나, 9월말 허리케인, 보잉의 파업 여파로 미 노동부에서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등 일회성 충격이 반영된 영향이 컸음.

같은 맥락에서 ISM 제조업 PMI(46.5 vs 컨센 47.6)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지만, 실질적 선행 지표인 ISM 제조업 신규주문(47.1 vs 컨센 47.0)은 견조했다는 점이 침체 내러티브의 확산을 억제한 것으로 보임. 기대치의 문제였을 뿐 아마존 금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아마존, MS, 알파벳, 메타 등 M7 업체의 CAPEX 확대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증시의 위험선호심리를 유지시켜준 모습.

이처럼 고용, ISM 등 주요 경제지표, M7 실적과 같이 메인 경제지표와 메이저 업체들의 실적 이벤트는 종료됐으며, 현재까지의 주가흐름을 미루어 보아 중립 이상으로 소화한 것으로 판단. 이제 시장은 정치와 중앙은행 이벤트에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으로 예상.

미국 대선의 경우, Poly market과 같은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54.8%)가 해리스(45.3%)보다 당선 확률이 높게 책정되고 있으나, 해리스의 추격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한 때 두 후보간 67% vs 33%). 2일 기준으로 전국 여론조사(트럼프 48.4% vs 해리스 48.1%), 7대 경합주 여론조사(트럼프 48.6% vs 해리스 47.4%)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에 있기도 함. 경합주인 애리조나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 집계 후 확정까지 5일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이는 2016년, 2020년 대선과 달리 6일(수, 한국시간) 국내 증시 장중에 대선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그 여파로 6일 대선 출구조사 시점부터 트럼프 트레이드 vs 해리스 트레이드간 손 바뀜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주 중반부터 증시 변동성의 레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대선 직후 이를 뒤인 8일(금, 한국 시간 새벽)에 11월 FOMC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 Fed Watch 상 25bp 인하 확률이 90%대에 육박하는 만큼,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상태. 이보다는 9~10월 비농업 고용, 9월 CPI 등 지난 9월 FOMC 이후 고용과 물가 데이터를 입수한 파월의장이 기자회견이 중요할 것. 향후 경기 전망, 금리인하 경로, 중립금리 레벨 등과 관련한 스탠스 변화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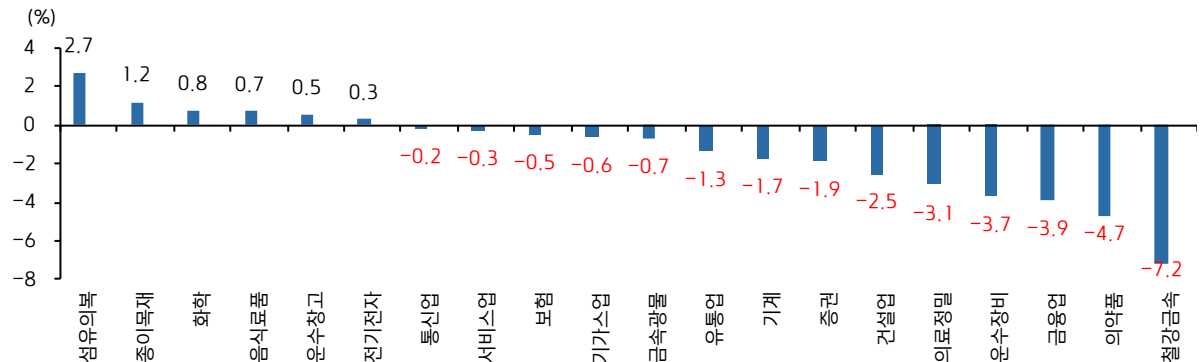
미국의 정치 및 통화정책 이벤트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가 영향력은 가려져 있겠지만, 8일 중국 14기 전인대 상무 위원회에서의 특별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추가 부양책 발표 여부도 주목할 이벤트. 뿐만 아니라 쿠팡, NAVER 등 기업 실적시즌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정치, 실적, 매크로 상 주요 이벤트가 모두 몰려 있다는 점은 수급 여건이 얇아진 국내 증시의 장중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542.36	-0.5	-1.6	-2.0	-4.3
대형주	2,532.54	-0.4	-2.0	-2.0	-4.5
중형주	2,832.75	-1.7	0.2	-1.7	1.7
소형주	2,168.25	-0.6	0.2	-2.8	-5.2
코스피 200	337.49	-0.5	-1.7	-2.1	-5.7
코스닥	729.05	-1.9	0.2	-4.6	-15.9
대형주	1,771.40	-2.5	0.5	-4.0	-12.8
중형주	625.30	-1.5	0.5	-4.3	-12.5
소형주	2,338.20	-1.1	-0.1	-4.5	-16.7
코스닥 150	1,240.99	-2.5	0.5	-3.7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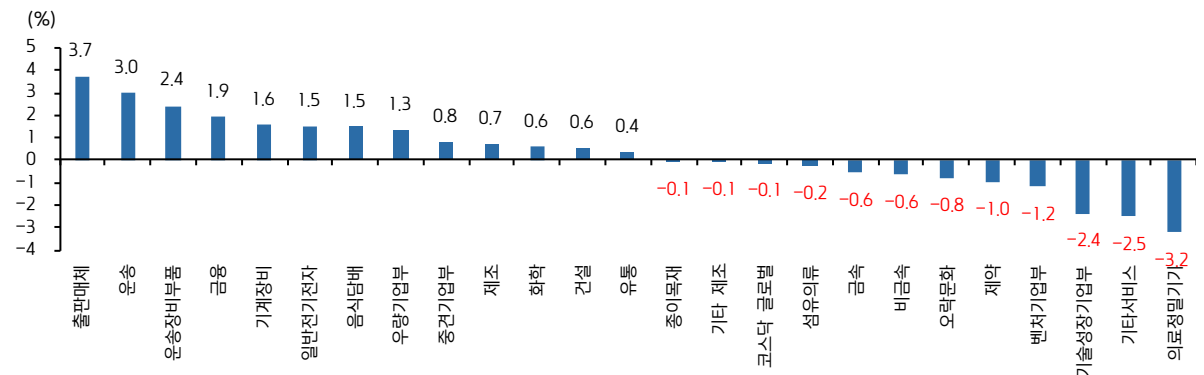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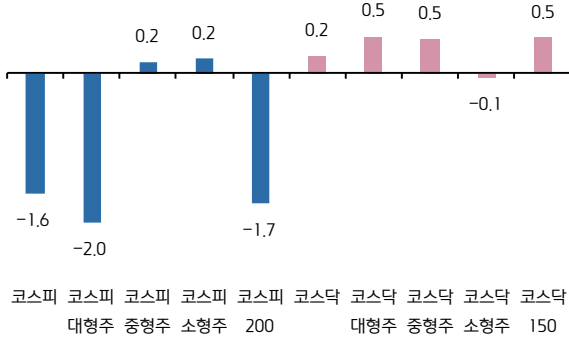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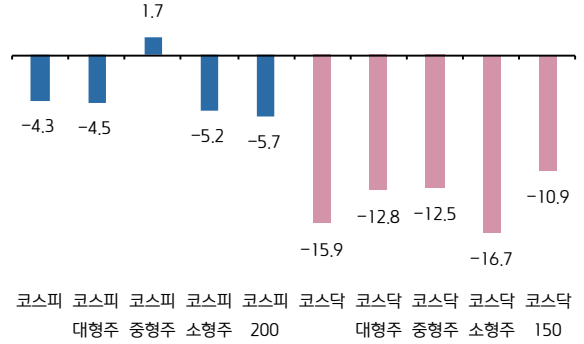
2024년 11월 4일

KIWOOM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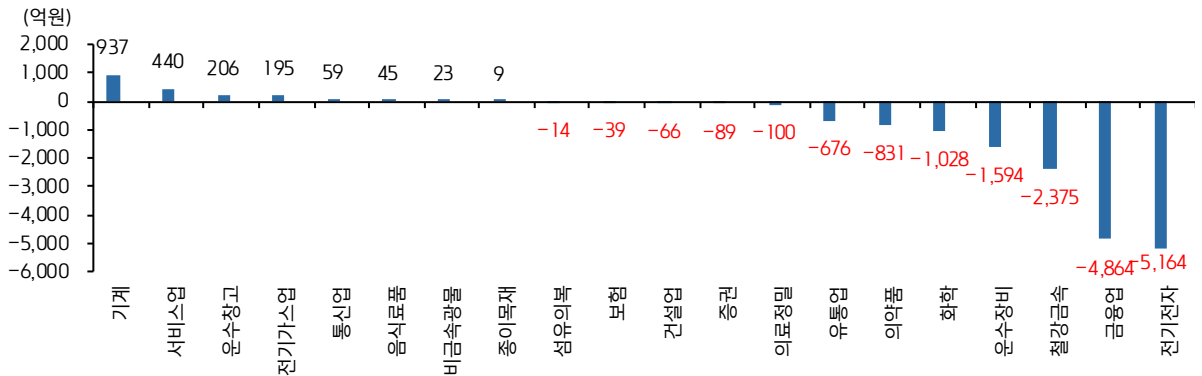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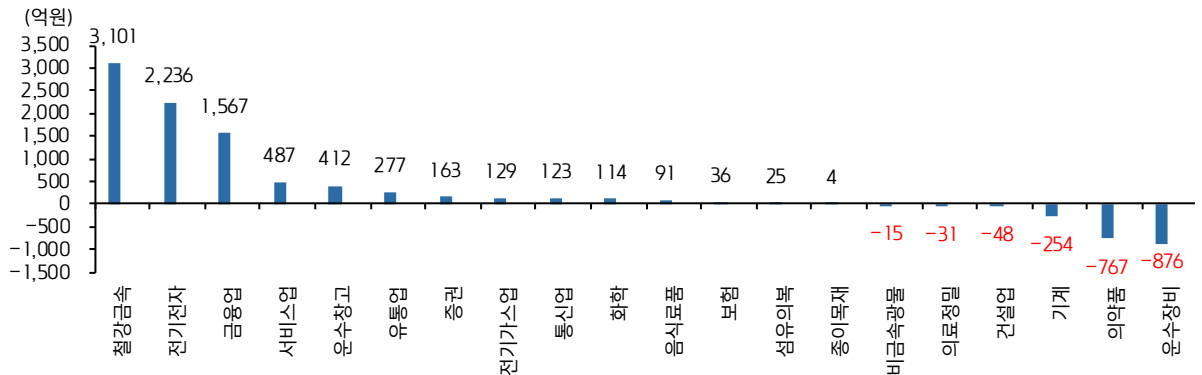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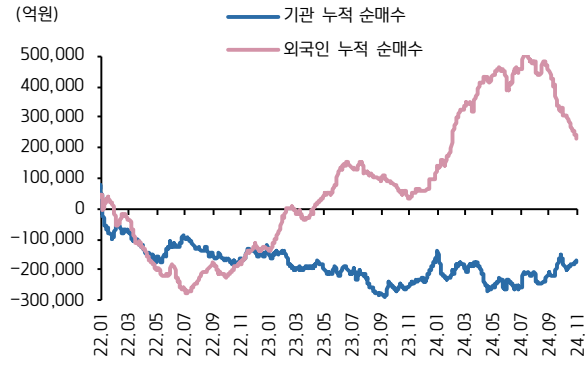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2024년 11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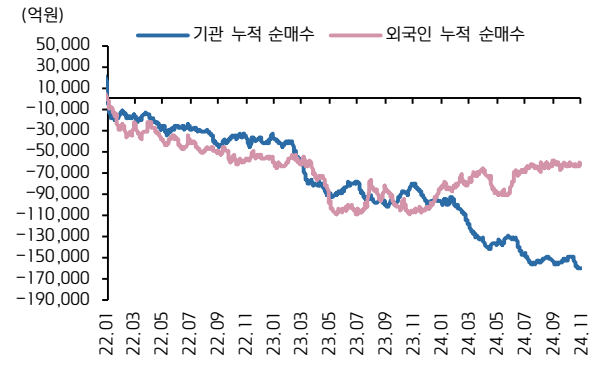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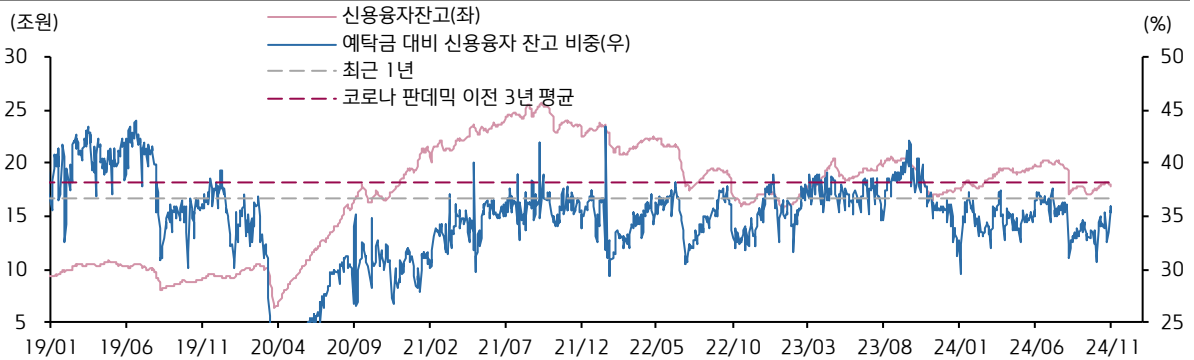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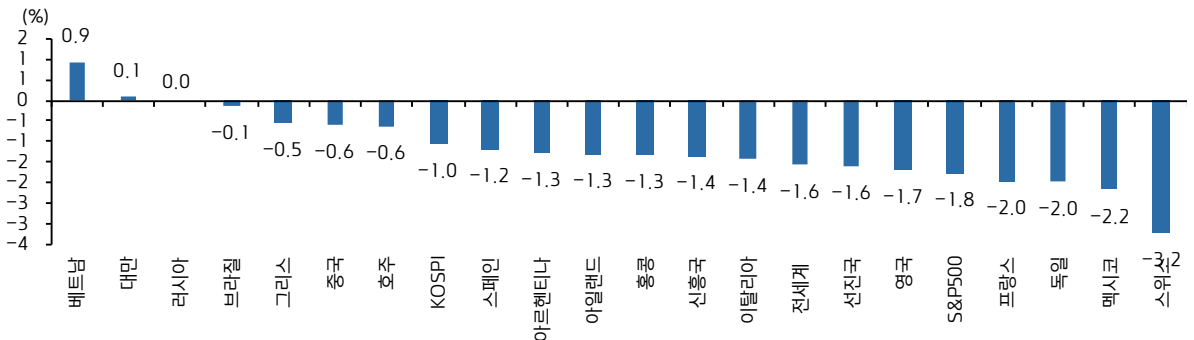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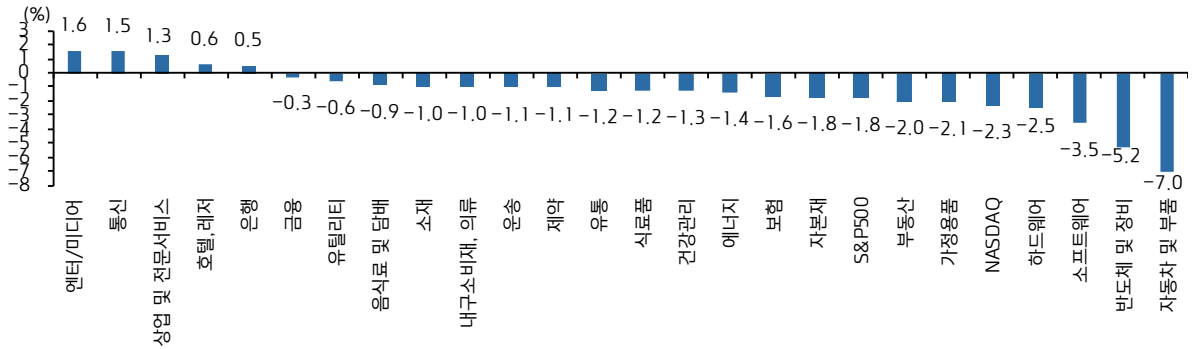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11월 4일

KIWOOM WEEKLY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